

## 루이스 영어회화 시리즈

아이의 방이 늘 지저분하다. 그런데 아이는 엄마가 청소를 해 주지 않으면 스스로 할 줄을 모른다. 아이에게 바른 생활습관을 길러주기 위해서도 자기 방은 자기 스스로 청소하도록 가르쳐야 한다. 거실에서 빈둥빈둥 TV만 보고 있는 아이에게 “방 청소 좀 해!” 라고 말하려고 한다. 영어로는 어떻게 표현할까?

유사한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는 문장들도 함께 소개한다. 한 문장당 20번씩 반복해 읽으면 모르는 사이에 영어 실력이 쑥쑥 늘어날 것이다.

1. 가서 방 청소 좀 해!

Go clean the room!

2. 가서 문 잠그고 와!

Go lock the doors!

3. 가서 박스 하나 가져와!

Go bring a box!

4. 가서 박스 하나 구해 봐!

Go find a box!

5. 가서 이것 돌려줘.

Go return this.

6. 가서 환불해 와!

Go get a refund!

7. 가서 잔돈 바꿔 와!

Go get some change!

8. 이 박스를 갖다 버려!

Go throw away this box!

9. 책 좀 빌려 와.

Go borrow some books.

10. 가서 비디오 돌려줘.

Go drop off the movie.

➔ 결과를 보장하는 루이스 영어교실 제공  
문의전화: (213) 284-4725 (CD, 교재)  
905 S. Euclid St.#208, Fullerton, CA 92832

## NFL 선수 될 뻔 했던 르브론 제임스

르브론 제임스(36, LA레이커스)가 한때 프로풋볼(NFL) 선수가 되려고 했다고 말했다.

지난 20일 '스포티비뉴스'에 따르면 르브론은 고교시절부터 미국을 대표하는 농구 유망주였다. 'ESPN'이 이례적으로 르브론이 나오는 고교 경기를 미국 전역에 생중계할 정도였다. 르브론은 소속 팀인 세인트빈센트-세인트메리 고교를 주 챔피언까지 이끌었다.

농구에만 두각을 나타낸 건 아니었다. 르브론은 고교 2학년 때까지 농구와 미식축구를 병행했다. 두 종목에서 르브론은 모두 이름을 떨쳤다.

미식축구에서 르브론의 주 포지션은 타이트엔드. 공을 가진 선수의 길을 열어주고 상대 수비수를 블лок하거나 상황에 따라서는 패스를 받기도 한다.

이뿐만 아니라 포지션 특성상 전술에 따른 다양한 움직임



▲ 한때 미식축구 선수가 되려고 했던 르브론 제임스

직임과 순간적인 상황 대처능력을 갖춘 영리함도 필요하다. 그러다보니 타이트엔드 포지션의 선수들 중에선 미식축구와 농구를 병행하는 경우가 잦다.

미식축구는 미국 내 최고 인기 스포츠다. 르브론도 미식축구 선수를 꿈꿨다. 미식축구선수가 되기 위해 훈련까지 했다. 1998년, NBA가 선수노조 파업으로 시즌 개막 일정이 무기한 연기되면서부터다.

르브론은 지난 18일 유튜브 채널에 나와 “미식축구 선수가 되려고 했다. NBA 파업 기간에 미식축구 선수가 되기 위해 훈련을 했다. 미식축구 선수에 대한 꿈은 지금도 있다.” 고 말했다.

구선수에 대한 꿈은 지금도 있다.” 고 말했다.

하지만 NBA 파업은 곧 끝났다. 르브론도 고교 3학년부터 미식축구를 접고 농구에만 전력을 쏟았다.

이후 르브론은 2003년 NBA 신인 드래프트 전체 1순위로 클리블랜드 캐벌리어스에 지명됐다.

## 미컬슨 “우즈, 맞대결 이벤트 매년 하자”

필 미컬슨(50)이 우즈(45)에게 매년 맞대결 골프 이벤트를 열자고 제안했다.

지난 28일 '세계일보'에 따르면 미컬슨과 우즈는 2018년 11월에 거액을 걸고 '일대일 대결'을 펼쳤다. 여기서 미컬슨이 승리해 상금 900만 달러를 챙기는 등 적지 않은 화제를 낳았다.

그리고 지난 25일에는 '더 매치 : 챔피언스 포 체리티' 행사로 재대결을 펼쳤다. 이번에는 프로풋볼(NFL) 스타 페이턴 매닝, 톰 브래디와 함께 한 '2대 2 대결'이었다. 이번 대결에서는 우즈와 매닝 조가 1홀 차 승리를 따냈다.

이 행사는 미국 내 평균 시청자 수 580만명으로 미국 케이블 TV 골프 중계 사상 최다 시청자 기록을 세웠다. 또 코로나19 돕기 기금도 2,000만달러(약 247억원)를 모



▲ 필 미컬슨(오른쪽)과 타이거 우즈

으는 등 '흥행 대박'을 쳤다.

흥행 열기에 고무된 듯 미컬슨은 지난 28일 로스앤젤레스 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우즈에게 “골프 이벤트 대결을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하자.”

미컬슨은 또 “첫 대결에서 부족했던 점을 두 번째 경기에서 보완했다.”며 “파트너를 한 명

씩 추가하면서 재미있는 요소가 늘었고, 카트에 카메라를 설치한 점도 좋았다.”고 자랑했다. 그는 “앞으로 더 대회를 재미있게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미컬슨은 우즈와 한편이 되는 경우도 가능하다고 제안했다. 그는 “나와 우즈가 한편을 이뤄 두 명의 젊은 선수를 상대할 수도 있다.”며 “저스틴 토머스와 같은 선수가 대상이 될 수 있고, 이런 경기를 원하는 시장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Jin Hyuk Lee**  
**213-210-2898**  
**735 E. 12th St., #308**  
**Los Angeles**

CA Insurance Agent #: 0G84555

자동차 주택 사업체 생명.



**Allstate**  
You're in good hands.

© 2019 Allstate Insurance Co.

9772519

### 1318호 숫자퍼즐 (이번호 정답은 P45에 있습니다)

7	9		3			8		6
		5		9				
4	6				2		5	
				2		4	3	
	8		6			7		
		9						2
6			1		7	9		
		4			9		7	
				3				8